

값높은 평가

2013년 6월 어느날 평양기초식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구내에 자리잡고있는 탁아소도 돌아보시였다.

불수룩 정이 들고 아담하게 꾸려진 탁아소의 전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탁아소가 멋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아이들이 뛰노는 마당에는 새 품종의 잔디를 심고 담장을 따라가며 유희기구들이 설치되어있는 곳에는 인공잔디를 깔았다고 말씀드리였다.

일매지게 고르로운 잔디밭을 다시한번 눈여겨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잔디를 정말 잘 키웠다고, 어느것이 진짜잔디이고 어느것이 인공잔디인지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잔디밭에서 재롱스럽게 뛰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정겨운 시선을 주시며 경상유치원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을 화제에 올리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콘크리트로 포장한 마당을 두고 못내 걱정하시며 아이들이 뛰놀다가 상할수 있으므로 마당에는 고무깔판을 깔아주거나 잔디를 심는것이 좋다고 각근히 이르시였다.

그때일을 회억하시며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기초식품공장에서 자신께서 말한대로 탁아소마당에 잔디밭을 조성해놓았는데 아주 잘하였다고, 이 탁아소는 당정책이 제일먼저 침투된 곳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